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 소 이야기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신축년 소의해를 맞이하여 우리 국토에 녹아 있는 문화와 역사를 소와 관련된 지명을 통해 풀어보았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경상남도 밀양시 멍에실 마을

· 지명이야기를 통한 "소" 확행 ·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 소띠

지명이야기

국토지리정보원은 2010년 호랑이(경인년, 庚寅年)를 시작으로 매년 우리 국토 속 십이지(十二支) 동물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丑)의 해를 맞이하여 관련된 지명을 조사해 본 결과, 전국에 소와 관련하여 고시된 지명은 총 731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동물이었던 만큼 국토 속 지명에도 많이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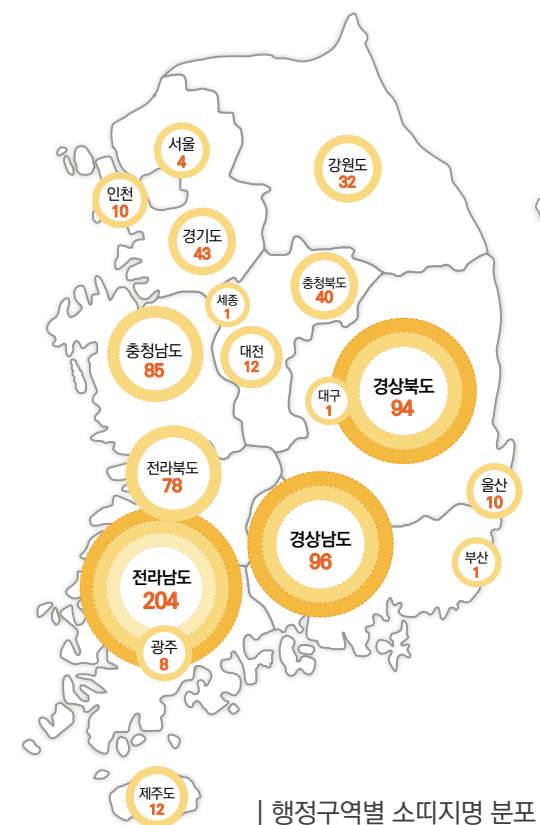
| 근면, 풍요와 희생을 상징 |

십이지 열두 동물 중 두 번째 동물인 소는 시간으로는 축시(丑時)라 하여, 새벽 1시~3시를 가리킵니다. 또한 방향으로는 북북동(北北東), 달(月)로는 음력 12월을 지키는 방향신(方向神)이자 시간신(時間神)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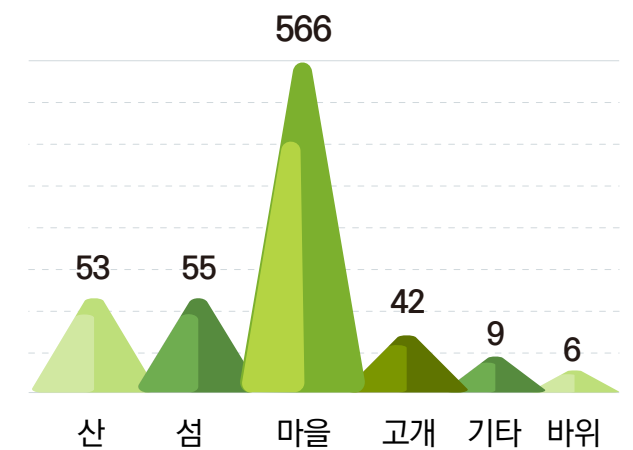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소를 근면, 풍요와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겼으며 농사일을 돕는 매우 중요한 동물로 아득한 옛날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소가 우리 민족의 일상과 얼마나 가까운 동물이었는지는 국토에 스며있는 많은 지명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와 관련된 지명은 십이지와 관련된 지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던 용(1,261개), 말(744개)에 이어 세 번째(731개)로 우리 국토 곳곳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소는 인간들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이었습니다. 상상의 동물 용 다음으로 소 관련 지명이 말 지명만큼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동물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행정구역별 소띠지명 분포 |



지명의 종류별로는 마을이 566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섬(55개), 산(53개), 고개(42개) 등에서도 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 지명 빈도수(상위 10개) |

지명의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우산(牛山)”이라는 지명이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우산”을 비롯하여 전 국에 23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우동”, “우암”, “우도”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를 닮은 지명

“졸고 있는 소를 닮은 우면산”, “누워있는 소의 모습 우도”

소는 전통 농경 사회에서 힘든 농사일을 도맡아 하던 주역으로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반면 우직하고 순박하면서도 여유로운 천성을 지닌 동물로도 인식되었습니다. 바쁜 농사철이 마무리될 때쯤 한가하게 누워있는 소의 모습은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 소의 모습을 닮아 붙여진 지명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牛眠山)”은 산 모양이 소가 졸고 있는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푸른 바다와 검은 돌담 그리고 등대가 가장 제주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우도는 누운 소 모양이라는 데서 지명이 유래되었습니다.



* 우도(牛島) 유래비



* 우도(牛島) 입구

* 하우목동항 조형물



의 눈(牛目)에 해당한다고 하는 “상우목동(上牛目洞), 하우목동(下牛目洞)” 마을이 유래와 함께 관련 조형물로 관광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 하우목동항 버스정류장



우도에는 특히 소와 관련 된 지명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도의 최고봉은 산 봉이 소의 머리와 같다고 하여 “소머리오름(牛島岳)”이라 하였으며, 소머리오름에서 내려다 보면 소

* 우암산 정상 표지석



* 우암산 등산안내 표지판



이 밖에도 소가 누워있는 모양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산”, 동쪽과 서쪽에 소의 형상을 한 섬이 있다 하여 지명이 유래된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동소우이도”와 “서소우이도” 등 소를 닮아 붙여진 지명은 우리 국토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지명이야기 ☁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장소로 널리 알려진 “우금치”는 소를 가지고 넘지 말란 의미인걸 알고 계셨나요?”

「농경사회에서의 소는 부와 풍요를 상징」

※ 우금치전적지(사적 38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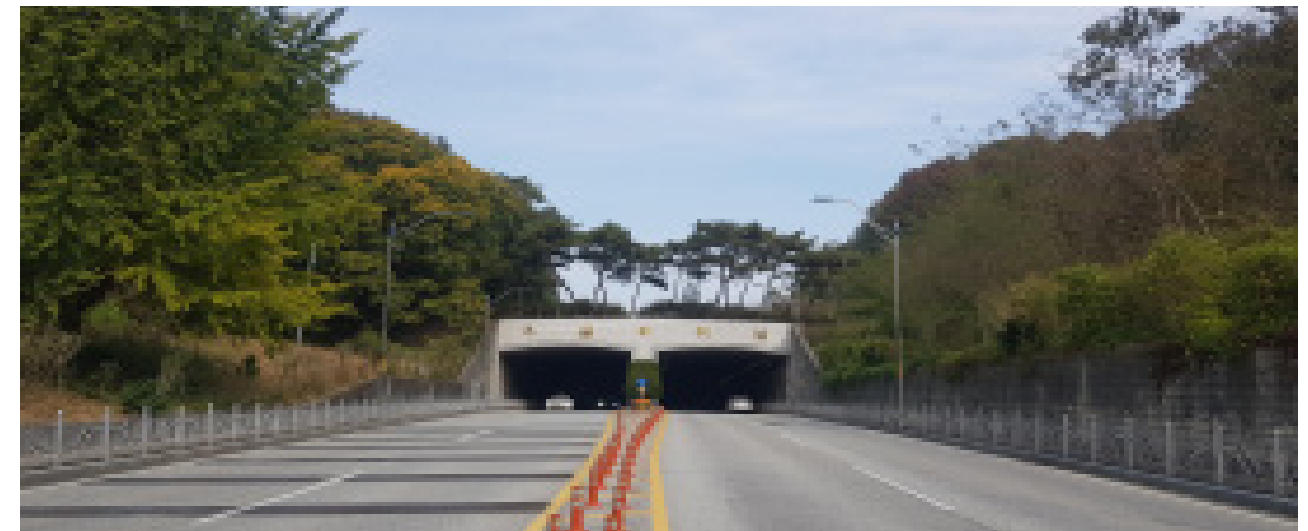
소는 농경문화가 정착된 이후 줄곧 매우 중요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농사일을 돕는 일하는 짐승이라는 단순한 가축의 의미를 넘어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부(富)와 재산을 상징해왔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독양리 “쇠실(牛谷)” 마을에는 마을 뒤의 한 산이 마치 소가 누운 형상이고 옛날에 돈이 많은 우(牛) 부자가 살았다하여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처럼 농경사회에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동물로 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소가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최고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소도둑”은 큰 도적으로 주의해야할 대상이었습니다. 지명 속에서도 소도둑을 조심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지명에서 소도둑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학군이 관군과 맞서 싸우다 크게 패한 곳이자 “우금치(牛禁峙)”라고도 잘 알려진 충청남도 공주시의 우금고개는 옛날 이 고개에서 소도둑이 많이 나타나 해가 저물었을 때 소를 끌고 고개를 넘어가면 도둑들에게 소를 빼앗긴다고 해서 장을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피해야 한다 하여 우금고개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우금터널(우금티터널)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구정리 “구축(九丑)”마을에는 옛날 선비가 아홉 마리의 소를 기르면서 마을을 발전시켰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우가”마을은 인근 마을의 소가 병에 걸려 증세가 날로 심해지자 전염 방지를 위해 이곳 우가마을에 집을 짓고 피난시켰다고 하여 우가(牛家)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소를 중요한 재산으로 여겼고, 소를 위해야 집안의 번창과 마을의 안녕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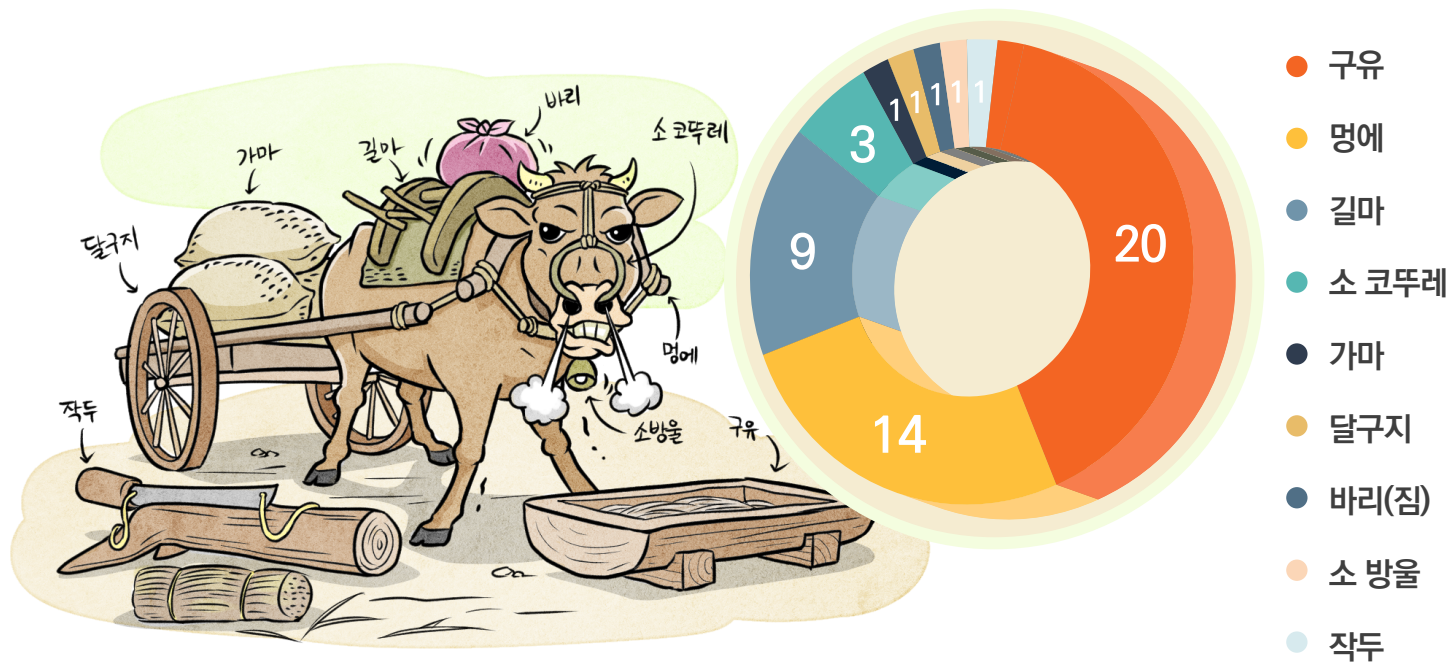
※ 우금터널(우금티터널)



※ 국토지리정보원 구지도(2016)

농경문화를 반영하듯 농기구 지명도 다양 “멍에실”, “가우도”

「구유, 멧에, 코뚜레 등 농기구 관련 지명도 분포」



| 소띠지명 도구 관련 빈도분포 |

* 양기훈의 <발갈이>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소는 논이나 밭을 쟁기질 하는 등 힘든 농사일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이자 일상생활에서의 운송수단이었는데, 이러한 소의 쓰임과 관련하여 발달한 농기구들은 지명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소에 소용되는 도구와 관련된 지명은 관련 지명 중 6.9%인 51곳으로 조사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명을 살펴보면,

소가 쟁기질 할 때 목에 거는 막대인 “멧에”와 마소나 돼지에 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을 의미하는 “구유”, 소 등에 얹어 물건을 운반하는데 쓰는 연장인 “길마” 그리고 “코뚜레”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멧에실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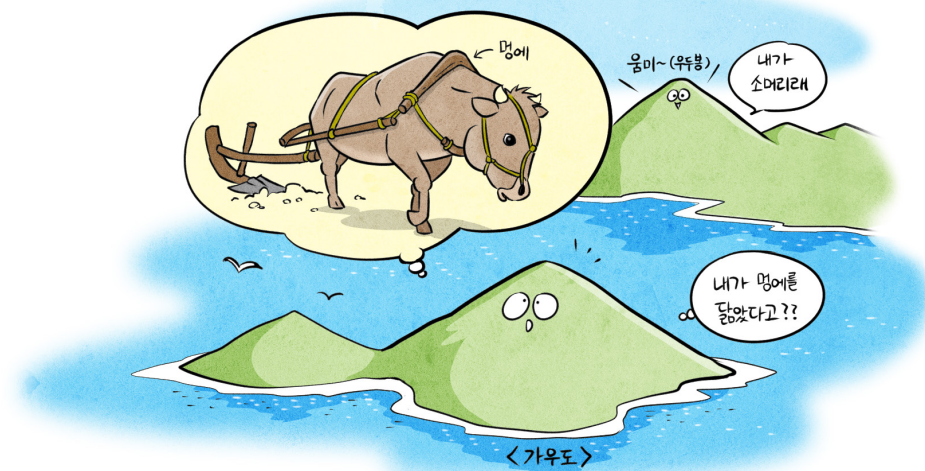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읍 옆에 위치한 멧에실 마을은 마을의 모습이 소 멧에와 같다는 데서 지명이 유래되었습니다. 옛 농기구인 “멧에”를 닮은 마을로서 이러한 지명유래를 살린 다양한 벽화가 조성되어 있어 눈길을 끄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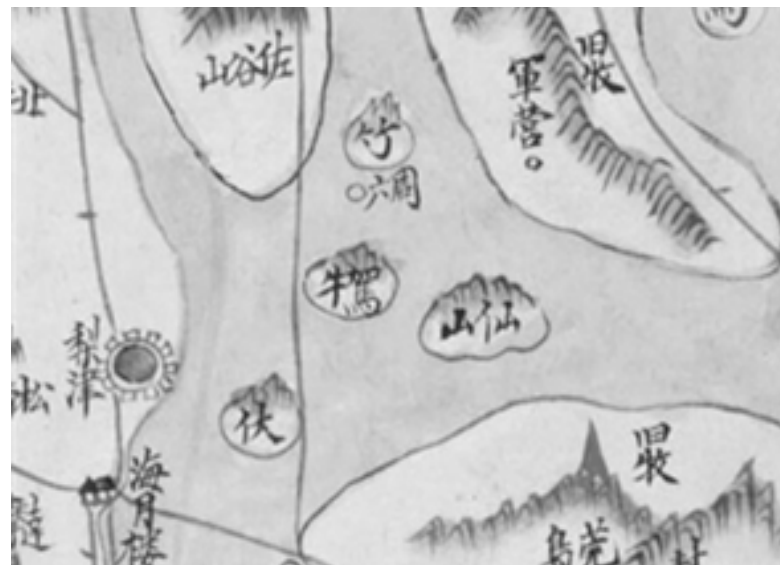
일상적인 농촌풍경을 담은 벽화를 비롯하여 소와 관련된 지명유래 등을 마을 곳곳에 벽화로 조성하여 마을에 볼거리와 이야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 멧에실 마을벽화





※ 『동여도』(21책 4면)의 가우도(가우) 일대



한국지명유래집(전라·제주편)

전라남도 강진군의 대표적인 여행지라 할 수 있는 도암면 용흥리 앞바다에 위치한 가우도는 강진읍 보은산이 소의 머리에 해당되고 이 섬이 소의 멍에에 해당된다고 하여 가우도(駕牛島)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강진군 마을사』에서는 강진군 전체의 지형을 와우형(臥牛形)으로 묘사하면서 소와 관련된 지명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우(駕牛)란 가마나 상여 또는 짐수레를 끄는 소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가우도는 섬이지만 2개의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인도교가 설치되어 있어 배를 타지 않고도 섬에 닿을 수 있습니다. 강진을 대표하는 청자모양의 타워가 자리하고있고 해안선을 따라 생태탐 방로가 조성되어 있어 2.4km의 길지 않은 길과 걷기 편하게 조성된 데크로 즐겁게 섬을 한 바퀴 걸으며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있습니다.



실제로 강진군 보은산 정상 봉우리는 소를 닮아 지명이 유래된 “우두봉”으로 오르는 길목에는 소를 주제로 지은 열 두 고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고개의 뜻과 옛 이야기를 따라 오르다보면 우두봉 정상에서 한눈에 평화로운 강진의 전경을 감상해 볼 수 있습니다.

※ 우두봉에서 본 강진군전경



※ 보은산(우두봉)



※ 보은산 열두고개(우두봉고개)



※ 보은산 열두고개(초지고개)

소의 먹이를 주는 통은 “구유”라고 하여 지역에 따라 구시, 구이, 귀, 여물통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는데, 마을의 지형이 소가 여물을 먹는 구유통처럼 생겼다하여 지명이 유래된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통골”을 비롯하여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구시골”, 경북 봉화군 명호면 “구우밭(九牛田)” 등 지명과 지명유래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언어적 표현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코투레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질매재”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경문화 중심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농사의 주역인 소와 관련한 여러 도구들이 땅이름과 깊은 관련을 맺어 온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 호랑이와 싸워 아기를 지켜냈다는 “우혜마을”

“의열도(의우도)”에는 호랑이와 싸워 주인을 구한 소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데, 이처럼 소는 흔히 의로움(義)을 상징하는 동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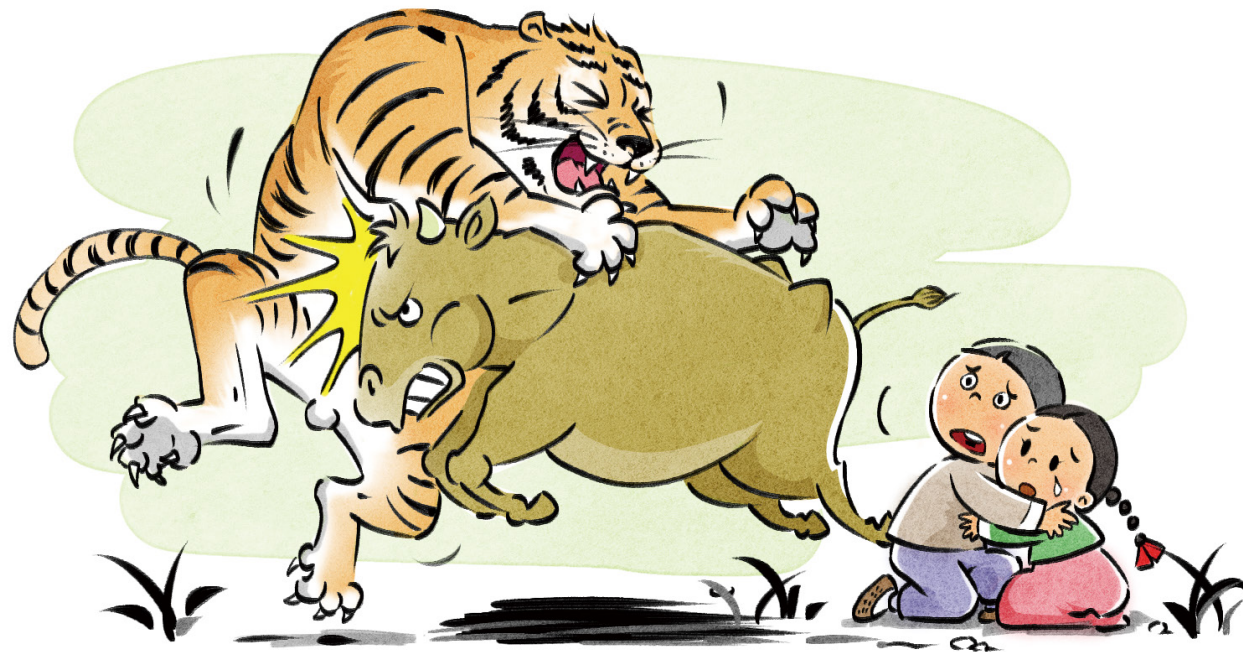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에는 인간을 위해 온몸을 아끼지 않은 소의 헌신과 의리를 기리는 지명이 전해 지고 있습니다.



* 〈의열도(의우도)〉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옛날 마을에 한 어린이가 마을가에서 놀고 있는데 맹수가 달려드는 것을 옆에서 본 소가 대적하여 맹수를 죽이고 어린 아이를 구했다고 하여 소의 은혜라는 의미에서 마을명을 “우혜(牛 소 우, 惠 은혜 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재미있는 “소통령” 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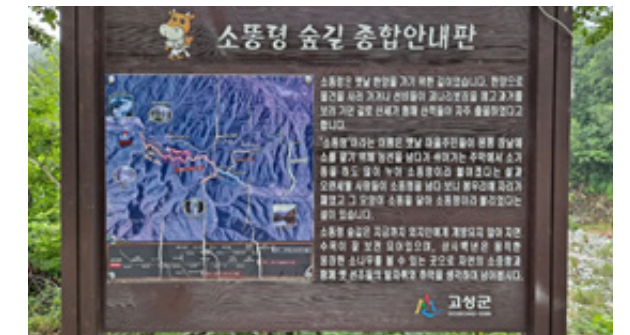
* 소통령 마을입구



* 소통령 마을



* 소통령 십터



* 소통령 숲길 안내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는 소와 관련된 재미있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름도 재미있는 소통령 고개입니다. 옛날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고개로 이곳의 지명에 대한 유래는 다양하게 전해지지만 가장 널리 전해지는 이야기는 고개를 넘어 장으로 팔려가던 소들이 고개 정상에 있는 주막 앞에 똥을 많이 누어 산이 소똥 모양이 되었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산 생김새가 소똥과 같이 되어버린 탓에 소통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부상과 장사꾼들이 넘던 옛 오솔길은 현재 “소통령 숲길”로 조성되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트레킹코스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개가 위치한 “소통령”마을은 향로봉 아래 위치해 아늑한 풍경을 자랑하며, 자연생태우수마을로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이름에 더해 다양한 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처럼 생긴 마을 “소돌마을”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에서 북쪽에 위치한 소돌마을은 마을에 있는 바위가 소의 머리 처럼 생겼다고 하여 소돌이라 하였다는 설과 마을의 모습이 소가 누워있는 모양이라고도 하여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길게 늘어진 마을의 모습은 지명유래처럼 마치 소가 드러누워 있는 모습을 닮았는데, 마을 해변가에는 모양이 거대하고 힘이 센 소의 모습을 닮은 바위를 비롯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아들을 점지해준다는 전설을 담은 아들바위 등 바람과 파도에 깎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여러 형태의 기암괴석들이 신기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소돌포구 바로 뒤에 있는 아들바위 공원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바위정상에 오르면 소돌해변에 있는 여러 형태의 바위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소돌마을 표지석



※ 소돌 어촌체험마을



※ 아들바위공원



※ 아들바위공원

이처럼 오랜 옛날부터 우리의 삶과 함께해 온 소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전설을 품고 우리 국토의 지명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 소의 해를 맞이하여 새해의 다복을 기원하며 서로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행복하고 넉넉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녹아들어 있는 지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래 등을 발굴하여 지명이 우리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